

목어

두 부류 불교기사



도수 본지 논설위원 정업도량 회주

현대사회에서 TV나 신문 같은 매스컴은 하나의 권력으로까지 불릴 만큼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 종교계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오히려 종교계는 포교나 선교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에 매스컴이 다루는 내용에 대해 때로 과민해지기도 한다.

‘인론폭력’이나 ‘편파보도’니 하는 불면 외침이 이따금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일반 매스컴에서 다루는 불교기사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문성을 담아 작성한 기사요, 다른 하나는 기자의 무지가 통통 튀는 기사다.

전자는 불교계에 몸담고 있는 어떤 스님이나 학자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박함을 바탕으로 한 기사이며, 후자는 불교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비웃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나 용어를 마구 제멋대로 휘갈긴 기사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데 있다. 일간지에서나 TV에서 만나는 기사나 PD의 무지나 무례에 기가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떤 때 일간지 종교기사를 보면 차라리 다루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여겨질 때도 많다.

후자의 경우는 무지해서 그렇게 쓴 것 말고, 일부러 불교를 폄하할 목적으로 쓴 기사도 드물지만 눈에 띈다. 이런 경우는 아마도 기자 개인의 종교나 왜곡된 소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언론이 한국 사회에서 바로설 수 있도록 전문분야 특히 종교계와 관련된 기사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환생 준비하는 바미안 석불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구 탈레반 정권이 파괴한 바미안 석불이 ‘환생’을 준비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과 문화재 보호 재단인 세븐 원더스 파운데이션, 아프간 박물관이 지난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높이 53m의 거대 석불 복원 작업에 나선 것이다. 그 첫 단계로 석불의 평면 사진을 3차원 동영상으로 복구하는 작업은 이미 성공리에 끝났다. 문제는 3000만~5000만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복구 작업 비용.

장군속매

외국에 떠돌고 있는 우리문화재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소장중인 우리 문화재 931 점을 조사한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은 새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고고·미술·민속품 등 전 분야에 걸친 유물 787점과 관계사건·탁본자료 114점이 소장돼 있는데 청자와 금속기, 나전칠기 등 국보급 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 윤근일 미술공예실장은 “귀중한 우리 문화재가 제대

6월 24일, 충북 증평의 모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컴퓨터 음란 사이트 본 후 성행위 모방. 6월 26일, 수원 모초등학교 5학년 강모(11)양 인터넷 온라인 게임로 170만원 때문에 꾸중 듣고 자살. 7월 6일, 서울 시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딸이 컴퓨터 게임에 빠진 것에 격분 배란다 밖으로 컴퓨터를 던져 지나가던 네 살 어린이 중상.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들이다. 흔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매스컴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충격적’이라는 말로 호들갑을 떨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임을 헤아리던 단순히 충격적이라는 말과 상투적 개탄의 목소리는 무책임하게 들린다. 소를 잃어아만 외양간을 고치는 우리 사회의 허약한 면역체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40% 가량이 인터넷에 중독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학업이 낮은 학생일수록 중독이 심하고 그들의 대부분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 단순히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연관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만약 오늘 우리 사회에서라면 맹자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천하의 맹자 어머니도 두 손 놓고 말았을 것이다. 이사 따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이제 ‘물’과 ‘공기’ 같은 것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것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누구나 다 아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것들이다. 컴퓨터를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두라. 숙제 등 할 일을 다 끝낸 뒤 컴퓨터를 켜라. 1시간 이상 하지 않도록 하라. 컴퓨터 사용 일지를 만들어 시간 및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라. 부모 자녀 간

많은 대화를 나누어라. 그래도 안 되면 상담원 등 전문가를 찾아라. 과연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진짜 병행은 당장의 현실에 있는 게 아니다. ‘미래를 타진’한다는 데 있다. 학업 성적 같은 숫자가 미래를 결정하는 암울한 현실이 청소년들을 가상공간으로 몰아



불자 세상보기

윤제학

본지 논설위원

인터넷과 맹모삼천지교

많은 대화를 나누어라. 그래도 안 되면 상담원 등 전문가를 찾아라. 과연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진짜 병행은 당장의 현실에 있는 게 아니다. ‘미래를 타진’한다는 데 있다. 학업 성적 같은 숫자가 미래를 결정하는 암울한 현실이 청소년들을 가상공간으로 몰아

많은 대화를 나누어라. 그래도 안 되면 상담원 등 전문가를 찾아라. 과연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진짜 병행은 당장의 현실에 있는 게 아니다. ‘미래를 타진’한다는 데 있다. 학업 성적 같은 숫자가 미래를 결정하는 암울한 현실이 청소년들을 가상공간으로 몰아

많은 대화를 나누어라. 그래도 안 되면 상담원 등 전문가를 찾아라. 과연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모가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진짜 병행은 당장의 현실에 있는 게 아니다. ‘미래를 타진’한다는 데 있다. 학업 성적 같은 숫자가 미래를 결정하는 암울한 현실이 청소년들을 가상공간으로 몰아

열린마당

문화재위원 자격 논란

문화재위원의 자격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특정 학회나 협회,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이익집단처럼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은 문화재위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한 주장이 불씨다. 스님 3명이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있는 불교계는 “스님을 이익 집단에 비유하는 것은 불교문화재의 특수성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편집자주>

황평우 종교보다 학문·인류학적 고찰 우선

이기선 불교유산은 신앙 결정체·예경 대상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올해 새로 임명된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건조물과 동산문화재 분과 위원 중엔 특정 종교와 단체의 이익을 대표할 위원이 있으며 사적분과에는 과거 잘못된 판단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데 전초를 제공한 위원도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선정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뉜 먹기 식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장인,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는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불교문화재의 잘못된 복원, 보수는 불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문화재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잘못된 자기주장만 하는 일부 소수 스님들(일부 불교계에게도 있다. 일부 전문가문화재위원 포함)의 무지로 있지만 자기이익만 주장하는 일부 불교계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불교문화유산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단지 ‘예배의 대상’이나 ‘종교적인 가치관’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교문화유산이나 민속(무속)이나 여러 문화유산들은 역사적, 학문적, 인류학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교문화유산의 주인은 스님이나 불교계가 아니라 전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기선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장)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인사(人事) 뒤에는 늘 뒷말이 무성하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전문위원의 명단이 발표되자 전보다 개선된 점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위인’이 들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불교계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불교문화재는 불교인만의 것은 아니고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그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를 예외서 자기 나라나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자기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까닭은, 문화유산은 바로 자국(自國) 역사의 구체적 물증이기 때문이다.

불교문화유산은 문화재이기에 앞서 신앙의 결정체로 예경의 대상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유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유산의 위상에 견주어 그 보존과 관리에서 불교계의 책임과 권한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문화재위원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위원회 설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곳이다. 현행 문화재위원회 규정에는 90명 이내의 문화재위원과 그 밑에 18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둘 다 임기는 2년이다.

문화재위원회가 하는 일 중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문화유산이나 사람을 국보나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와 같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일이다. 이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고고학적 발굴과 기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 예컨대 수리나 복원도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조사 심의

8개 분과...위원 분과별 10명 안팎

거쳐야 한다. 현행 문화재위원회는 각기 특수성에 따라 건조물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박물관, 문화재 제도 등 8개 분과로 나뉘어 있고 분과별로 10명 안팎의 위원이 선임돼 있다. 이 중 불교계에선 동산문화재 분과에 별하 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이 문화재위원으로, 흥선 스님(지자사 성보박물관장)이 전문위원에 위촉돼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올해 새로 신설된 문화재 제도 분과 문화재위원이다.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제 4577호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해 놓았는데, 문화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2조(구성) 2항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四季)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는 원칙이 전부이다. 권형진 기자

신나고 즐겁게... 부처님과 더 가까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부처님같이” 천마산 수진사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합니다. 사찰예법과 스님께 듣는 부처님 이야기,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를 돌아 볼 수 있는 참선, 음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체험하는 발우공양, 탑돌이 등의 수행체험과 협동놀이, 찬불동요, 신나는 레크네스, 장애체험, 물놀이, 캠프파이어 등의 공동체 활동으로 진행될 이번 여름불교학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 주어 생활 속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바르고 성실한 불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짐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귀댁의 자녀들이 여름불교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3년 7월 26일 (토) 오후 3시~ 28일 (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호평동 천마산 수진사 (165. 165-2버스종점하차 → 마을버스 10번, 11번 종점 수진사)
● 참가비 : 2만 5천원
● 준비물 : 이불,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양말, 모자, 숙웃, 필기구, 샌들, 긴팔, 긴바지
● 문의 및 신청 : 지오스님, 주임교사 전진아 031)591-7710, 3364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대한불교 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진사

제16회 소림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어느덧 16년째 맞는 소림사 어린이 불교학교는 해운주지 스님의 후학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원력으로 매년 여름방학기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2박 3일동안 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의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은 스님들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놀이와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며, 사경, 사불, 찬불동요, 촛불발원, 현장학습, 찬불가와 율동, 국군장병들에게 위문편지와 선물보내기, 독경대회 등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 시 : 7월 25일(금) 오후 2시 ~ 27일(일) 오후 1시
● 장 소 : 서울 홍지동 소림사
● 대 상 : 유제년생, 초등학생
● 참가비 : 3만원
●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그림도구, 갈아입을 옷, 모포
● 문의 및 접수 : 현진스님 02)394-2145
서울 종로구 홍지동 80-1 대한불교 조계종 소림사 주지 해운 합장

제20회 흥국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안녕하세요? 뒀산 솔바람 싱그러움 숲에 자리잡은 흥국사 어린이 불교학교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신나고 짭나는 우리절 짹!”이라는 주제로 문물 활짝 열고 예쁘고 착한 우리 어린이 불자들에게 사찰에서의 예절, 스님께 듣는 부처님 이야기, 탑돌이, 수계식(오계), 찬불동요, 신나는 레크네스, 여러 공동체놀이 등 정말로 신나고 짭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품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교가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생활과 불교의 밀접한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절로 많이 놀러 오세요. ^^
● 일 시 : 2003년 7월 27일 (일) 오전 9시 30분~ 29일 (화) 오후 2시까지
● 대 상 : 유아(5세이상), 초등부
● 장 소 : 당진 흥국사
● 참가비 : 5,000원
● 문의 및 신청 : 041)362-6008, 363-6008
충남 당진군 신령면 금천리 68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흥국사

제 6회 대원정사 하계 수련회 즐거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불자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발우공양 및 예불, 사물 사경법, 사찰 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소중한 자녀들에게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배워 불교인으로서 긍지를 지닐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7월 24일(목) 오전 11시 ~ 7월 26일(토) 오후 2시 (2박 3일)
● 참가대상 : 불자들의 가족, 초·중·고생, 직장 및 일반
● 참가비 : 3만원
● 교육내용 : 발우공양, 참선, 목탁 치는 요령, 불교 관련 도서 열람 등
● 선생님 : 성종현, 고영민, 이수경, 최연정
● 차량운행 : 7월 24일 오전 10시 10분 구파발 환승 주차장 앞 출발 장흥 농협 오전 10시 30분 출발
● 참가접수처 : 031)855-5501, 5503
※ 수련회 참가 희망자는 2003년 7월 15일 까지 참가신청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중무소 사무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주지 석혜연 합장